

어린이집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어린이집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인사말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며 애쓰는 보육교사들의 사명감은 무너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많은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와 긴 시간, 그리고 가장 가까이 생활하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모든 것의 우선 순위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모아 책자로 발간합니다.

일과를 운영하며 나도 모르게 은연 중에 나오는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스스로 점검해보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모쪼록 보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런 노력과 정성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의 수호천사인 보육교직원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홍 원 자



Contents

I. 영유아 권리존중	3
II.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9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25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I. 영유아 권리존중





1. 영유아 권리 존중

아동권리의 기본이념(아동복지법 제2조)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알리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국제협약 비준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1. 영유아 권리 존중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여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2016. 5. 2 발표)



1.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들이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시고 점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보세요.

	체 크 항 목	예	아니오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표현을 한 적이 있다.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돼지야! 이 못생긴 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 아동을 비난,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한 적이 있는 경우 :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예비 없는 자식,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숫자 다 셀 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할거야! 동생반이나 원장님실로 보내버릴거야!, 엄마아빠한테 이룰거야!, 집으로 내쫓을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아동에게 보육교직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7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거야!"		

	체 크 항 목	예	아니오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면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때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카락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욕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 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 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저귀갈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자가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보육교직원이 직접 활용: 주기적으로 자기 행동을 평가해본다.
- 보육교직원 상호 모니터링 위한 활용: 주기적으로 짝으로 정한 보육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눈다.
- 원장의 보육교직원 관리를 위한 활용: 주기적으로 원장이 소속 보육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직원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구 분	내 용
아니오	당신의 아동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예'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하는 문항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http://www.korea1391.go.kr/new>).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II.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II.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 존중

1-1. 영유아 권리 존중(필수)

영유아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달 과정에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영유아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최근 영유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관심, 요구, 흥미, 의도, 행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이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보호와 존중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본 지표는 교사가 공감과 인정, 격려를 통해 개별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지, 영유아의 다양한 배경 및 조건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관하여 2개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점점 Point!

- ☒ 교사는 영유아가 언제든지 개별적 요구와 의사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
- ☒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용, 인정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함

일과가 주로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보육실에서는 영유아 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우선 도레끼리 해결 하지 않고 교사에게 상황을 계속 이르는 행동 대부분의 영유아가 보육실 내의 놀잇감이나 물건을 사용할 때나 다른 활동으로 전이할 때 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행동 등이 자주 나타남

- 선생님 이제 놀아도 돼요?
- 선생님 여기서 놀아도 돼요?
- 선생님 물 마셔도 돼요?
- 선생님 간식 다 먹은 사람이 이제 뭐해요?
- 친구에게 "야 선생님이 잠자기 전에는 책만 보는 거잖아. (역할영역) 거기서 놀면 어떻게 해"
- 선생님 ○○이가 책 안보고 역할에서 놀이해요"
- 선생님 원래 우리랑 안 놀잖아요, 선생님 컴퓨터 안해요?"

한 영유아의 요구를 듣고 있는 중 다른 영유아가 요구를 해오는 경우

- (수용적인 표정으로) "지금 ○○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었니?" 라고 말해 주고, 많이 기다렸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는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했어? 등 이후에 말을 걸어온 영유아의 요구에도 잊지 않고 응답해 줌
- "○○아 선생님에게 할 말 있으면 꼭 해줘, ○○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궁금한지 말을 해주어야 선생님이 알 수 있거든"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 ①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점검 Point!

- ☒ 교사는 영유아가 질문을 할 때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수용적 행동을 하여 유아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깊게 들음
-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질문에 즉시 언어적, 비언어 적(몸짓, 표정 등)으로 적절하게 반응함

영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의 몸짓이나 음성으로 된 요구를 주의 깊게 보고 언어화하여 적절하게 반응함



- 끄덕이기, 미소짓기, 경청하는 표정, '음~' 등의 수용적인 억양, 영유아에게 따뜻한 시선 보내기, 영유아와 눈 맞추기 등
- 영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함께 시선을 옮겨가며 바라봄 (기저귀 갈아 시) 영영이가 보송보송 해졌네, 기저귀 가니까 기분이 좋아? ○○이가 웃으니 선생님도 기분이 좋네
- 그래, ○○이가 혼자 미끄럼틀을 타고 싶었구나 웃이 불편했구나. 편한 바지로 갈아입을까?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 시 수용적 행동으로 끝까지 주의 있게 들음



- 저 블록이 갖고 싶어? 꺼내줄까?
(유아의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도 궁금한데 우리 같이 책을 찾아볼까?
- 페름 상자에 구멍을 뚫어 달라는 유아의 요구에
○○아 선생님 손에 물감이 묻어 도와주기가 어려운데 먼저 상자를 꾸미고 있으면 어떨까?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②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점검 Point! ♥

- ☒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야기함
- ☒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함
- ☒ 교사는 영유아와 대화시 눈을 맞춤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 (교사는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거나 모든 대화를 교사가 시도하고 교사 주도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영아에게)

-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라고해.
- 우리 시의 심볼마크(마스코트, 시목, 시화 등)는 무엇일까?
- 그렇게 행동하면 친구들이 오해하잖아.

교사는 영유아에게 말을 할 때 너무 느리게나 빠르지 않고, 부드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톤으로 내용을 전달함
교사는 영유아와 대화시 눈을 맞춤



- ○○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볼까?
(양치하는 영아에게) 물을 오글오글(오물오물) 해볼까?
- (오물질을 하여)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밖으로 뱉어보자.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줌



점검 Point!

- ☒ 교사는 영유아가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말로 표현해주며 격려함.
- ☒ 교사는 미소를 지어주며 영유아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함

어려운 일을 시도하거나 용기가
필요한 경우

- 조금은 겁나지만 ○○이는 해낼 수 있을거야. 선생님 손을 잡고 평균대 위를 걸어보자. 한 걸음만 먼저 해볼까?
- ○○이가 혼자서 신발을 잘 신었구나.
- ○○이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니까 △△이가 좋아하네.

○○이는 합을 잘 만들었구나!
잘했어, 멋지다! 최고!
양치질 잘했으니 칭찬스티커
하나 추가!

- ○○이는 블록을 높게 쌓아서 탑을 만들었네!
- 물감을 섞어 쓰니까 다른 색이 나오는구나!
좋은 생각인데?
- ○○이는 세수를 해서 얼굴이 깨끗하구나.
기분이 참 좋아보인다.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줌

점점 Point!

- ☑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야기함
- ☑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억양과 어조로 이야기함
- ☑ 교사는 영유아와 대화시 눈을 맞춤

올지!, 잘했어!, 굿잡!
칭찬의 박수 짹! 짹! 짹!

- 지난번엔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어야 미끄럼틀을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타고 내려올 수 있구나!
- 우와~ 토끼처럼 정충정충 뛰어넘었구나. 선생님이 손 안 잡아줬는데,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 우리 ○○이가 밥 골고루 잘 먹으니까 튼튼해져서 다리 힘이 세졌구나!

(바구니에 놀잇감을 정리하는
영아에게)
고마워요~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 ○○이가 놀잇감 집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는구나!

야! 거기는 왜 올라가서 그래?
무섭다면서 왜 올라가려고 해?
내려오지 못할거면 올라가지 말든가
그냥 내려와! 다 내려왔잖아!

- 선생님처럼 하나씩 손을 하나씩 옮겨 보면서 움직여보자.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 ○○아,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조심해야해.
선생님이 손 잡아줄까?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③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줌



점점 Point!

- ☒ 교사는 영유아의 말,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언급함으로써 교사가 영유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 교사는 미소를 지어주며 영유아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함
- ☒ 교사는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특이하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음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추기,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 및 말투
사용하기, 개별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 ○○이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 ○○가 무엇을 그렸는지 얘기해 줄래?
- 참 재미있는 질문이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니?

영유아의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 기분이 좋아보이는구나
- 화가 났나 보구나
- 부끄러워서 그랬어?
- 슬퍼서 눈물이 났어, 왜 그럴까?

영유아의 배경에 따른 말과
행동의 차이를 특이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음

- 왜 잘자고 일어나서 짜증이야?
- 집에서 너희 엄마가 그래?
- 진짜 알 수가 없네.
- 손들어 놓고 왜 말을 못해?
- 그렇다면 왜 손을 들어?

- 잠이 덜 잤나보다. 아직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나보구나. 조금 더 있다가 일어날까?
- ○○아, 오늘 어디가 불편하니?
-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렴
- ○○이가 말하고 싶은데 쑥스러운가보구나
-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까? 선생님이랑 함께 말해볼까?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점점 Point! ♥

- ☑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영유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 ☑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간결하고 영려하게 현재 상황과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함

선생님 말 안 들어서
또 일어버렸잖아!



• ○○아, 일어버려서 속상하겠다. 선생님하고 다시
찾아보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나 사물함에
넣어두면 일어버리지 않을거야

앞으로 나오면 언제,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 안지치 말고
보고만 있어



• ○○아, 조금만 뒤로 가주면 다른 친구가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 정리하는데 너만
뭐하니? 왜 놀고 있는 거야?
우리 먼저 나간다. 네 살
동생들도 정리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 ○○아, 종이접기를 더 하고 싶니?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네.
• 오늘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려고 (공을 보여주며)
선생님이 이렇게 공을 준비했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볼까?
• 우리 정리하고 공놀이하러 바깥에 나가자.
종이접기는 오후에 계속 하면 어떨까?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너 자주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꺼어들거니?
그렇다면 너가 선생님해!



- 우리 ○○이가 궁금한 것이 정말 많구나.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들어서만 이야기
해 보자.

아직도 혼자 못 닦아? 선생님도
좀 억자!, '아우~ 냄새.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니'



-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번은 ○○가 해볼까? 정말 잘했어.
조금만 연습하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겠다.

아기처럼 물놀이 하는 친구네.
지금 물놀이하는 시간이야?
이 닦는 시간인 걸 모르는
친구들은 동생반에 가야겠어.
선생님 말을 안 듣니?
지금 바닥 다 더러워졌잖아



- ○○아,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양치컵은 입안을 향할때 쓰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지금은
이닦는 시간이니깐 우리 깨끗이 이를 닦아 볼까?
-물장난을 치면 옷이랑 양말이 젖고, 그러면 김기에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이 튀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단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워지면 ○○이가
다칠 수도 있어.

얼른 자야지! 경찰아저씨한테
○○이 잡아 가세요
전화해야겠다!



- ○○이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누워볼까? 선생님이 ○○이 곰돌이 이불 덮어줄게요.
노래 소리가 들리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게.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④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도 잘하는데, 넌 이것도 못해? 얼마나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거니? 어려우면 하지마. 잘하는 △△한테 해달라고 해. 그렇게 징징대면 더 해주지 싶어



- ○○아, 무엇을 겹고 싶니? △△이처럼 셔모를 겹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색종이 겹기를 하여) 와- ○○이도 혼자 셔모를 겹었네. 그레 이 끝을 겹고 위 끝에 맞추면 된단다.
이제 ○○이도 색종이 겹기 잘하네.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네 입이 나쁜 거지. (손으로 입을 때리며) 나쁜 입은 혼 나야해!



- ○○아, 장난감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런데 만약 다른 친구가 너를 때린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 ○○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속상해서 친구를 물었니? 그런데 △△가 많이 아프다고 울고 있네. ○○도 이렇게 물면 많이 아플 거야~ 이제부터 친구에게 말로 해 줄 수 있을까?

네가 원숭이야?
왜 원숭이처럼 매달려?



- ○○는 언지기 놀이가 재미있나보구나. 그런데 선생님은 ○○랑 친구들이 다칠까봐 많이 걱정돼. 언진 놀이감에 부딪히면 많이 아플 텐데. 언지지 말고 놀도록 하자.

이 책 누가 찢었어? 이리와.
네가 다시 그대로 붙여놔.



책을 찢으면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없는데. 선생님이랑 찢어진 부분 같이 붙여 붙여?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 ①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

점검 Point!

- ☑ 교사는 개별 영유아가 지닌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함
- ☑ 교사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종교, 인종, 성별,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함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성차별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 남자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일어나
- 선생님은 여자라서 힘이 약해
- 자동차는 남자 친구들 하라고 해. 우리 인형놀이 하자
- 경찰관을 경찰관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병원놀이시 여아는 간호사, 남아는 의사를 시키는 경우 혹은 '간호사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
- 남자, 여자 친구들의 이름표 등을 파란색, 분홍색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 (여아에게) 왜 이렇게 남자처럼 극성맞게 노니?

여자아이가 목욕도 안하고 더러워.
물티슈로 얼굴 좀 닦아.

선생님이랑 같이 깨끗하게 세수할까?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는 혼자서 세수도 양치도 잘하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리자!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점점 Point!

- ☑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 넌 맨날 울기만 하니?
- 그 옷은 너랑 안 어울려
- (음식을 먹는 흉내내며 놀이하는 영아에게)
"○○이는 살찌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몇 살인데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해?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제대로 못들었어.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줄래?

(행동이 느린 영아에게)
언제까지 친구들 기다리게
할거니?
아이고~ 세월아~~ 세월아~~



○○아, 외투 입는게 힘드니? 팔 넣는거 도와줄까?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 타서 온
영아에게)
'아이고~ 신나게 놀았나보네.
태국 사람같네.
(함장하며) 싸와디캅~'
(동료 교사에게) 선생님 예 좀
봐요, 완전 태국 사람 같죠?



○○이가 바닷가에서 신나게 물놀이 하고 왔구나.
얼굴이 많이 뷔네. 따갑겠다 선생님이 엄마가
보내주신 로션 발라줄게. 바닷가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궁금한데 ○○이가 이야기해 줄래?

◇1-1-2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② 교사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성격, 행동 등을 평가하지 않음

점검 Point!

-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음식을 천천히 먹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이는 고기만 먹니?
야채는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
안 돼.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먹지 않니.
그렇지아~ 채소 다 안 먹으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



- ○○이가 고기를 잘 먹는구나. 시금치는 먹기 싫어?
고기만 먹으면 용기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만 먹어볼까?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얘기 해 줄게. 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와~ ○○이가 시금치를 먹었네.
- ○○이 옷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의 음식이 나왔네
- 조금씩 잘라서 먹어보면 먹기 편할거야
- 한번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볼까? 그리고 정리해도
돼요*
- 오늘은 ○○이가 먹기가 힘든 모양이구나. 다음에는
한번 먹어보자~

특색활동(오감놀이 등)에
참여하지 않아 활동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경우
*이리와서 사진만 찍자. 엄마가
사진 없다고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 우리 ○○이가 좋아하는 반죽놀이하는데 한번 꼭꼭
놀이해볼까?
- 친구들은 무슨 놀이하는지 한번 볼까?
- 음. ○○이가 놀이하기 싫은가보구나.
그러면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II.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Tip. 영유아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의 예

- ☒ 부드럽게 영유아의 이름 부르기
- ☒ 영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아직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익숙해지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 ○○이는 정리를 꼼꼼하게 하네
- ☒ 영유아의 의견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기
 -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네
 - 그런 방법도 괜찮은걸?
- ☒ 영유아의 실수도 이해하고 존중하기
 - (혼자 컵에 물을 따르나 물을 엷지른 영아에게) ○○이가 선생님 도움없이 혼자 해보려고 했구나
- ☒ 눈높이 맞추기, 따뜻하고 즐거운 표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는 행동 등

Tip. 영유아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예

-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아!', '너!', '예!' 등으로 위협적으로 부르는 경우
- ☒ 표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지만 영유아를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 ☒ 대화 시 얼굴을 쳐다보지 않음, 짜증내는 표정, 비웃음,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등





Gyeonggi-d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Ⅲ.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1. 등원 및 맞이하기

점검 Point!

- ☒ 교사는 등원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즐겁게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여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함
- ☒ 오늘 일과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유아의 눈을 마주치고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맞이함
- ☒ 부모에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유아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돕고, 헤어짐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음

등원시 영아가 엄마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되지? 씩씩하게
헤어져야 착한 친구지?
엄마 가시는데 속상해 하셔,
울면 안 되지.
이렇게 울면 미운 사람 돼요."

- 사랑하는 우리 ○○, 이리 오렴. 선생님이 안아 줄까?
(영아를 안아준다)
우리 ○○이가 왜 울까? 엄마와 헤어지기가 힘드니?
선생님과 재미있게 놀고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선생님과 어떤 놀이할까?
- (가족사진이나 애착물건을 보여주며)
엄마가 어디 계실까? 엄마가 여기 있네.
- (새로운 놀잇감을 제공하며) 이건 뭐지? 소리가 나네.

"누가 늦게 오세요?
일찍 오세요."
"들어오기 싫어?
그럼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우리 노는 거 구경하세요."
"인사 안해?"

- ○○아 선생님이 ○○를 아침 일찍부터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내일은 일찍 와서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놀자
- ○○이가 안와서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와서 다행이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속상했어?
어디 아프니? 이리와 선생님이 안아줄게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1. 등원 및 맞이하기

☀️ 등원하면서 가져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서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 하는 경우

"선생님이 지금 바쁜 거 안보이니?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 알았어,
빨리 들어와서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음에 또
가져오면 뱀어서 선생님이 가질
거야."

· (반갑게 인사한 후)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이 오는 시간이라 잠깐만 기다려줄래?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 팔찌를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선생님이 간식을 나눠주고 있어서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네.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면 어떨까?

·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런데
장난감을 가져오면 다른 친구들도 갖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2. 놀이시간



점점 Point!

- ☒ 교사는 놀이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 ☒ 교사는 놀이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여 놀이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방관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놀이에 자발적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헤어짐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거나 축소하지 않음



○○이 종이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놀이할 때, △△이 와서 만들어 놓은 종이블록 자동차에 앉으려 하거나 종이블록을 가지고 가려는 경우

*친구가 만든 자동차잖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니?
자동차가 망가졌잖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 △△아, 왜 ○○이가 만든 자동차에 앉았니? 이렇게 자동차에 앉으면 ○○이 마음이 어떨까? 같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우리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면 되겠다.
- ○○아, △△이가 네가 만든 자동차가 정말 멋있데, 같이 놀고 싶다고 하네. ○○이는 어떻게 하고 싶니?
- △△이도 종이블록이 필요했구나. 그런데 ○○이가 만든 블록을 그냥 가져가면 ○○이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2. 놀이시간

놀잇감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

"그거 친구에게 얹은 나뉘네!
욕심 부리면 놀이 못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거 어린이집 꺼지. 니꺼니?"
"너만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돼."
"아! 눈 똑바로 떠. 이게 니꺼니?
또 거짓말하네."
"얘기처럼 욕심내는 친구는
동생반에 가세요"



- OO가 모두 갖고 싶구나!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갖고 놀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 네가 갖고 싶어하는 놀잇감을 OO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양보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
- OO야 집에도 똑같은 것이 있나보구나!
어린이집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거야.

놀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놀이 싫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한 곳에 앉아서 놀아야지!"
"놀고 싶은거 없어?
꼭 같이 놀아줘야 하니?"



- OO가 어떤 놀이를 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했구나,
가까이 가서 보면서 어떤 놀이를 할지 경해볼까?
- OO야, 밀가루 반죽이 아주 부드러운데 한번 만져볼까? (손인형을 이용하여)
OO야, 오늘 원숭이가 그려진 옷을 입고 왔구나,
우리 반에 원숭이 인형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기름은 어디에서 넣어요?'라고 묻고, '친구들이 주유소를 찾고 있네. OO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줄 수 있겠니?'
- (촉감놀이판) 이거 만져보니까 보들보들 정말 부드러워. OO도 만져보고 싶니?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3. 정리시간



점검 Point!

- ☑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거나 영유아로 하여금 모두 치우게 하기보다 교사가 모델링이 되어 함께 정리함
- ☑ 영아반의 경우 활동 중 영아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중간 중간 놀잇감을 정리해 줌
- ☑ 정리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여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고, 정리정돈을 독촉하지 않도록 함
- ☑ 영유아가 놀이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리시간 5~10분 전에 예고함

☀ 정리정돈 시간임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놀이를 지속하는 경우

"OO은 또 정리 안하는구나. 선생님 말 안 듣니? 선생님을 쳐다보지도 않네. 안 들리니? OO가 놀았으니 OO가 다 정리해야지. 정리 안하면 바깥놀이 못 나간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너만 놀고 있니?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놀잇감이 너를 미워할 거야. 네가 놀이한 것은 바구니에 넣어야지. 뭐하고 있니?"



- OO아, 선생님하고 정리할까? 사과 놀잇감은 어디에 놓아둘까? 와! OO이가 바구니를 찾았네. 우리 OO이가 정리를 잘하는구나."
- OO아, 지금은 놀잇감 정리시간인데, 뭐하고 있을까? 놀잇감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먹자.
-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볼까? 이 놀잇감은 어디에 넣어야 하지? 그래~ OO이가 잘 알고 있네. 바구니에 담아 볼까?
 와~ 우리 OO이가 정리를 잘 하는구나.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4. 집단활동

점점 Point!

- ☒ 유아) 대집단 활동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실시함
 영아)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 ☒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격려함
- ☒ 또래 간 상호작용 시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낼 경우,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또래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함

☀ 나비동화를 들려주고 있는데 유아가 부모님과 여행 등에서 경험한 나비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가는 경우

"선생님 동화 다 읽어주면 얘기하라고 몇 번 말했니? 너만 이야기하고 싶은 줄 아니? 좀 기다려라. 너 때문에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 줄 수가 없잖니? 너가 얘기할거면 너가 선생님 해!"



- ○○이가 나비를 본 적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나비 동화'를 듣고 있으니 다 듣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나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들이 궁금해 하네.
- (동화가 끝난 후) ○○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이 나비 이야기를 들어볼까?"

☀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 속상해 하는 경우

게임하다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그것 갖고 화내고 울고 그래?



- ○○이가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 속상했구나. 친구도 열심히했는데, 화를 내는건 친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거야.
- 실수해서 졌다고 생각하는거야? 선생님도 그런적 있었어. 속상하지만 그래도 잘 참았네.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5. 바깥놀이

점검 Point!



- ☒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개방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또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격려함
- ☒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사물, 사람에 대해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놀이와 활동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 교사가 일방적인 설명이나 통제, 지시로 일관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동기유발을 방해하지 않음

☀ 유아가 모래놀이터에서 물웅덩이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물이 자꾸 없어진다면 화를 내는 경우

"왜 잘 놀아놓고선 짜증을 내니?
그렇다면 들어가"
"OO야, 모래는 물을 흡수하니까
물웅덩이를 만들 수 없어"
"(영유아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선생님처럼 모래 위에 비닐을
깔고 물을 부어야 해.
따라서 해봐"

- OO이가 물웅덩이를 만들고 싶구나.
- 물이 왜 없어질까?
-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 물이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재료가 있을까?

☀ 바깥놀이 시 배변 실수를 한 경우

"꼭 나오기만 하면 이러더라"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오라고 했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고 놀았구나!
배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아프지 않았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다음부터 밖에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자.

III.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6. 점심시간



- ☒ 영유아의 연령, 개별요구에 맞추어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함
- ☒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음식을 천천히 먹는 등)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시 비난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음.
- ☒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 ☒ 교사가 정한 규칙과 식사시간에 맞춰 영유아들이 음식을 먹도록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음
- ☒ 교사는 바람직한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지도할 경우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함

☀️ 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를 할 때

“(교사가 손으로 영아의 등을 밀며)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라지. 자꾸 그러면 밥 먹을 수 없어. 또 그렇게 앉아서먹는 거야? 똑바로 앉지 못해? 바르게 앉지 않으면 정리할거야.”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니, 바르게 앉아야지, 아기 같구나.”
 “누웠네 누웠어.”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라.”



- 바르게 앉아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아플 수도 있대. 우리 허리를 펴고 앉아서 먹어 볼까?
 - (교사가 옆에 앉으면서) ○○아, 우리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볼까? 친구에게 기대면 음식을 흘릴 수 있어. 우리○○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있네. 책상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까? 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으니까 음식도 안 흘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네.”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7. 손씻기·이닦기

- ☒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 ☒ 교사, 영유아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음
- ☒ 유아) 이닦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함
- ☒ 영아)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되 일부 과정이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함



양치컵으로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거나 거울에 계속 물을 뱉으며 옷을 적시는 등 장난을 치는 경우

*아기처럼 물놀이 하는 친구네.
지금 물놀이하는 시간이야? 이
닦는 시간인 걸 모르는 친구들은
동생반에 가야지 뭐. 선생님
말을 안 듣니? 지금 바닥 다
더러워졌잖아.*



- ○○아, 이를 닦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지.
양치컵은 입안을 헹굴 때 쓰는 거지? 잘 알고 있네.
자금은 이닦는 시간이니까 우리 깨끗이 이를 닦아
볼까?
- 물장난을 치면 옷이랑 양말이 젖고,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물이 튀면
가분이 안 좋을 수 도있단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워지면 ○○이도 다칠 수도 있어.



영아의 이를 닦아주거나 손씻기 지도를 할 때

(말없이) 반씩 들어서 발판에
올려놓고 손을 씻김
(말없이) 양치할 때 교사의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잡고
이를 닦임



- ○○이 손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나네.
쁘드득쁘드득 깨끗해졌네.
- 선생님처럼 이렇게 손을 비벼볼까?
- (씻을을) 이렇게 잡고 위로 아래로 움직여볼까?
- ○○이가 칫솔을 잘 잡고 있구나.
- 쓱쓱쓱, 치카치가 ○○이 이가 반짝반짝
깨끗해졌네.
- (이닦고 아~하며) ○○이 입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8. 낮잠시간



점점 Point!

- ☒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 ☒ 만3세 이하의 영유아는 일과 중 반드시 낮잠시간을 계획, 실행함
- ☒ 개별적인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개인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함
- ☒ 잠이 깬 영유아를 안아 주는 등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영유아는 한쪽에서 쉬거나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배려함
- ☒ 낮잠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에게는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잠을 못자거나 누워서 옆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경찰아저씨 데려 가세요"

"OO는 아기 뽀에 가서 자고 와야겠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친구 자는데 방해가 되요."

"지금 안자고 있다가 늦게 잠들어서 깨울 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자 빨리 자야지~ 언제까지 떠들거야?"
(옆 친구를 불편하게 할 때)

"너 뽀에 혼자 나가있어야겠다.
너 친구랑 함께 놀 수 없어. 자지 말고
여기 이 책상에 앉아 있어"

- (등을 토닥이며)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게.
눈감고 꿈나라로 가볼까?
- OO야 ~ 짜증이 났니? 잠이 오는구나~
- (인형을 안겨주며) 토끼도 코~자네 우리 OO어도
코 치고 일어나서 놀이할까?
- OO야 잠이 안오니? 지금은 자는 시간이니까
잠이오지 않으면 누워서 쉬도록 하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놀이하느라 오늘 많이 피곤했지?
- 친구가 자니까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친구가 푹 잘 수 있도록 말야. 선생님이랑 OO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잠을 잘 수가 없데.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8. 낮잠시간



낮잠 중 깨어 노래를 부르거나 자고 있는 친구를 만지는 등 다른 친구의 낮잠까지 방해하는 경우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잘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자지 않고 있으면 도깨비
아저씨 불러 올 거야. 무서운
도깨비에게 잡아가게 할 거다.
안 잘 거면 이불 정리해야겠다.”



○○아, 잘 잤니?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누워있어도 돼. 아직 친구가 자고 있으니까 크게
이야기하거나 만지면 친구가 잠에서 깰 수도 있단다.
이쪽으로 와서 조용히 놀이 할까? 조용한 놀이하면서
친구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애착물을 안고 자려는 경우

“이런거 집에서 가져오지
말랬지?”
“주세요~ 치우고 자야지”
“빨리 가서 가방에 넣고와.
네가 애기니?”
“잘 때는 이런거 정리하라고
했지?”



- ○○가 인형을 찾는구나. 선생님이 인형 줄게요.
인형이랑 같이 꿈나라 갈까?
- ○○이가 가지고 온 수건이구나~ 음~ 좋은 향기가
나네~ 수건을 덮고 잘까?
- 선생님이 곰들이랑 ○○이 모두 재워줄게
- 곰들이는 벌써 잠이 들었네. ○○이도 코~ 자자”



III.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일과 운영

9. 귀가

점검 Point! ♥

- ☑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 ☑ 교사는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일과를 진행함
- ☑ 실내외 놀이시간으로 일과를 진행하고, 귀가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 어린이집 하원 시 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를 지정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함
- ☑ (부모가 희망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음

☀ 놀잇감을 가정으로 가져가려는 경우

*"이렇게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네 도둑되면 좋아?"
*이게 네 거야? 어린이집거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도 놀고 싶었구나. 그런데 이런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건데 ○○이가 집에
가지고 가면 다른 친구들이 못 놀아서 속상할 것 같아.
내일 와서 다시 재미있게 놀면 어떨까?

☀ 집에 안가려고 하는 경우

*("눈빛으로 제압하며) 엄마
오셨는데 엄마 기다리게
할거야? 엄마 일하고 오셨는데
○○이 때문에 더 힘들시겠다"

- ○○이가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더 놀고
싶구나. 오늘 정말 재미있었지?
무슨 놀이가 재미있었니?
- 내일 어린이집에 와서 더 신나게 놀자
- 선생님이 내일 더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을게~
내일 만나자

III.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일과운영

Tip. 체벌없는 훈육원칙

- ☒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한다.
- ☒ 영유아와 함께 규칙을 만든다.
- ☒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지 않는다.
- ☒ 영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가를 받도록 한다.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만 사용 / 예: 장난감을 던지거나 어지르면 정리하기)
- ☒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 ☒ 영유아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및 성학대를 하지 않는다.
- ☒ 영유아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영유아의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Tip.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30초 호흡법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간단히 쉽게 할 수 있는 '호흡'과 '감사할 느끼기' 방법

- ① 오른손으로 심장(또는 배) 위에 얹고 집중한다.
- ② 5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손바닥을 통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 ③ 5초간 천천히 숨을 내뿜는다. 이때 평소보다 약간 느리고 깊게 내뿜는다.
- ④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힘들다.
고마운 대상이나 감사한 경험을 진정으로 느껴야 고른 심장변동률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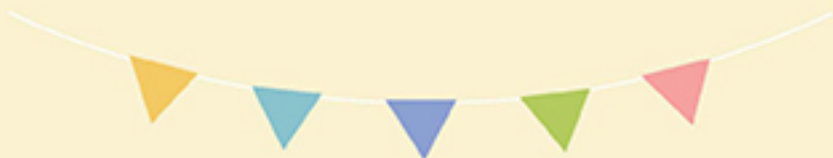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0).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8).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 박근주의(2020). 유아&교사 상호작용의 실제.공동체.
- 박근주의(202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실제.공동체.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9).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8).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존카프먼·조백·최성애(2011).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한국경제신문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new/>).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팅(평가컨설팅) 사례.



어린이집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

기획·총괄	홍원자(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다름(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이유경(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쇄	2020년 12월
발행	2020년 12월
발행처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16626)
전화	031-258-1485
발행처	초이스디자인



어린이집 평가지표로 알아보는

영유아
권리존중